

# 코스피 연일 불장 4400선 돌파... ‘꿈의 5000피’ 멀지 않았다

2거래일 연속 4300·4400선 잇따라 깨뜨리며 사상 최고치  
삼성전자·SK하이닉스 신고가 행진... 외국인 순매수 행렬

새해 첫 거래일부터 코스피 지수가 잇따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벗어나 글로벌 시장 영향력을 넓혀 나가고 있다.

그 동안 한국 증시 부흥을 위해 추진해 온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코스피 5000’ 고지 달성이 멀지 않았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이날 장중 역대 최초로 4400선을 돌파했다. 앞서 코스피는 지난해 하반기 처음 4200선을 돌파한 뒤 잠시 주춤했지만 연말 38거래일만에 4200선을 회복했다. 이어 지난 2일 새해 첫 거래일부터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형주를 중심으로 상승폭을 키워 처음으로 4300선도 돌파했다.

이날 역시 상승 흐름이 지속되면서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77% 상승한 4385.92에 개장했다. 이어 개장 직후부터 치솟아 전장보다 147.89포인트(3.43%) 오른 4457.52에 장을 마치며 직전 거래일(2일) 기록한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4309.63)를 하루 만에 경신했다.

코스피는 지난 주말 미국의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사태 등 증시 악화 여건이 될 수 있는 지정학적 변수에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이같은 성장세가 지속될 경우 올해 ‘코스피 5000’ 시대가 열릴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최근 삼성증권이 자산 30억원 이상 국내 고액

자산가 401명을 대상으로 ‘2026년 주식 시장 전망 및 투자 계획’을 조사한 결과 32.1%는 올해 코스피가 5000을 달성할 것으로 예측했고, 45.9%는 ‘코스피가 4500 돌파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반도체 대형주를 중심으로 급등했다. 코스피가 4400선을 돌파한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 확대 기대감, 메모리 업황 개선 기대감 등의 영향으로 장중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인 지난 2일 12만 8000원으로 신고가를 경신한 뒤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이

날 7.47% 오른 13만 81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사상최초로 ‘13만 전자’를 달성하며 시가총액(시총)은 800조원을 돌파했다.

SK하이닉스도 종가 기준 전 거래일보다 2.81% 오른 69만 6000원을 기록했으며, 시총 역시 500조원을 넘어섰다.

더불어 외국인들의 한국 주식 순매수세가 지속되는 점도 코스피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이 2조 1600억 원을 순매수하는 등 지난해 하반기 부진했던 국내 증시 외국인 매수세가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광주·전남 10개 경제단체·기관, 경제 도약·상생 다짐

경제계 합동 신년 인사회

광주·전남 경제단체와 기관 등 노사민정이 새해를 맞아 신년 인사회를 열고 광주·전남 기업들의 성공을 다짐했다.

광주경영자총협회(광주경총) 등 광주·전남 10개 경제단체·기관은 지난 2일 광주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함께 나누는 기쁨, 같이 여는 내일, 비상하는 광주·전남’을 기치로 지역 경제 도약과 상생을 약속했다.

경제계 합동 신년 인사회는 올해 지역 단위 전국 첫 행사로 광주·전남 광주경총 단체 회원사와 자치단체장, 산하기관장, 정치계 등 인사 18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참여한 경제단체는 광주경총을 비롯한 광주시건축사회, 광주전남벤처기업협회, 광주전남여성벤처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광주지회, 이노비즈협회 광주전남지회, 중소기업융합회 광주전남연합회,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본부, 한국여성경제인연합회 광주지회다.

참석자들은 이날 지역 중소기업의 수출 시장 다변화, 산업 융합 프로젝트 추진, 연구개발(R&



광주·전남 광주경영자총협회 회원사와 자치단체장, 산하기관장, 정치계 등 관계자들이 지난 2일 광주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경총 제공>

D) 지원, 노사민정 협력으로 노동 환경 개선, 건설업 하도급 환경 개선, 여성 기업 공공 조달 시장 진출 확대 등에 대해 논의했다.

양진석 광주경총 회장은 “광주·전남 발전과 경

제 제도약이라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2026년을 시작했다”며 “새해에는 친기업 환경과 노사 상생 문화 조성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 금융정책 수장들 “경제여건 쉽지 않아... 포용·생산금융 주력”

범금융 신년인사회... “부동산 격차 큰 K자형 회복... 체감경기와 괴리”

우리나라 금융정책을 지휘하는 수장들이 올해도 경제 양극화와 불확실성 등이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면서 취약계층을 지원할 포용금융과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한 생산적 금융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등 금융업권별 협회장들은 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범금융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금융계 인사들과 새해 경제 환경 등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이창용 총재는 “올해도 우리나라 경제를 둘러싼

여건이 쉽지 않으리라 예상된다. 통상환경과 주요국 재정정책과 관련한 다양한 위험 요인이 상존한다”며 “지난해보다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부동산 격차가 큰 ‘K자형(양극화) 회복’ 때문에 체감 경기와 괴리가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편더멘털(기초체력)과 괴리된 환율 절하 흐름은 중장기적 산업 경쟁력 강화, 자본시장 제도 개선뿐 아니라 정부·중앙은행을 비롯한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올해 생산적 금융의 성과

를 본격적으로 만들겠다. 정부·금융·산업이 힘을 합친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첨단산업에 과감히 투자할 것”이라며 “디지털자산 생태계를 건전하게 조성하고, 금융소의 계층의 고금리 부담을 덜기 위해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개편하고 금융회사 기여를 제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인들에게 “대내외 환경의 급변에도 우리 금융 시스템이 흔들리지 않도록 손실 흡수 능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위기 대응 역량 강화에 신경 써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또 “올해 민생경제 지원에 사회적 요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린다”고 덧붙였다.

/장윤영 기자 zzang@

## 1년 새 45개 그룹 총수 주식재산 35조 증가

이재용 1위·서정진 2위

최근 1년간 국내 주요 45개 그룹 총수의 주식평가액이 35조4000억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주식재산은 13조 9000억원 넘게 증가하며 이달 초 주식평가액이 25조8700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5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가 지난해 1월 2일과 이달 2일을 기준으로 ‘주요 그룹 총수 주식평가액 변동 추이’를 조사한 결과, 이 기간 45개 그룹 총수의 주식평가액은 작년 초 57조8801억원에서 올해 초 93조3388억원으로 1년 사이 35조 4587억원(61.3%) 증가했다.

조사 대상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지난해 지정한 92개 대기업집단 중 올해 초 기준 주식평가액이 1000억원 이상인 그룹 총수 45명이다. 이 가운데 1년간 주식평가액이 우상향한 총수는 41명(91.1%)에 달했다.

최근 1년 사이 가장 눈에 띄게 주식평가액이 상승한 총수는 이재용 회장이다.

이 회장이 보유한 작년 초 주식 가치는 11조 9099억원 수준이었으나, 올해 초에는 25조8766억원으로 평가됐다.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삼성생명 세 곳에서 1년 사이 각각 1조원 이상 주식평가액이 늘어난 덕이다.

이 회장 다음으로 주식평가액이 많이 오른 총수는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었다. 서 회장의 주식평가액은 작년 초 10조4308억원에서 올해 초 13조6914억원으로 3조2606억원가량 늘었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과 정몽준 HD현대 최대주주 겸 아산재단 이사장도 최근 1년 사이 주식재산이 2조원 넘게 늘었다.

이 밖에 방시혁 하이브 이사회 의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최태원 SK 회장, 조현준 효성 회장도 같은 기간 주식재산이 1조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 정일선 광주은행장 취임 첫날부터 현장 경영

중소기업·외국인금융센터 방문

정일선 신임 광주은행장이 취임 첫 공식일정으로 지역 내 중소기업을 방문하는 등 본격적인 현장 경영 행보에 나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사진> 광주은행은 “지난 2일 정일선 신임 광주은행장이 취임식 직후 첫 공식 일정으로 광주 소재 우량 중소기업 산업 현장을 방문했다”고 5일 밝혔다.

정 은행장은 이날 하남산업단지에 위치한 글로벌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 ㈜호원을 방문해 프레스 라인을 중심으로 생산 공정을 둘러보고, 주요 설비 운영 현황과 생산 과정에 대한 설명을 경청했다.

㈜호원은 기아 쏘울·셀토스 차량에 적용되는 차체 부품을 비롯한 광주글로벌모터스(GGM) 캐스퍼 EV 관련 부품을 생산하는 지역기업이다. 정 은행장은 이날 면담에서 제조 현장의 운영 상황과 글로벌 시장 환경 속 기업 경영,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 은행장은 “지역 기업이 성장해야 지역 경제도 함께 살아난다”며 “광주은행 역시 지역의 생활 속에서 역할을 다하는 은행으로, 현장과 함께 성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오후에는 광주시 광산구 흑석동 광주은행 외국인금융센터를 방문해 외국인 지원 관계기관 합동 차담회를 주재했다. 차담회에는 정 은행장, 외국인금융센터장, 광주시 다문화지원팀·인재양성팀 관계자, 광주외국인주민지원센터, 광산구 외국인 명예통장 등 내·외국인 10여 명이 참석했으며, 외국인 주민의 금융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불편 사항과 제도 개선 과제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정 은행장은 이날 마지막 일정으로 광주시 동구 충장로5가에 위치한 광주은행 포용금융센터를 찾아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는 광주시 상인연합회장, 총장상인회장 등 지역 상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고금리·고물가 환경에서 체감하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과 금융 이용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공유하며 대출 이자 부담 완화, 맞춤형 금융 지원 확대 등을 요구했다.

정 은행장은 “소상공인은 지역 경제의 뿌리이자 광주은행과 가장 가까운 동반자”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과 상품에 충실히 반영해 지역 경제와 함께 성장하는 상생금융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장윤영 기자 zzang@

## “쿠팡파이낸셜 고금리 이자 장사 현장 점검하고 조사 단계 전환”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5일 쿠팡파이낸셜 ‘고금리 장사’와 관련해 “정밀하게 현장 점검하고 검토로 전환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이찬진 원장은 이날 김광민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도덕적으로 소위 ‘갑질’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다른 유통플랫폼은 익일결제 등을 하고 있는데, 쿠팡은 한달 이상으로 결제 주기가 굉장히 길어 의아했다”며 “납득이 안가는 이자 산

정 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해 결과적으로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4457.52	(+147.89)
↑ 코스닥	957.50	(+11.93)
↓ 금리(국고채 3년)	2.933	(-0.002)
↑ 환율(US D) 〈오후 5시 39분 기준〉	1447.25	(+5.45)

## 광주신세계 “필코노미 용품 만나 보세요”



광주신세계 본관 8층 더조선포털 매장에서 직원이 페이스 타일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광주신세계는 올해 유통 트렌드로 주목받고 있는 ‘필코노미(Feel+Economy)’ 트렌드에 맞춰 다양한 상품들을 내놓고 있다. 광주신세계에서는 감정을 만족시키는 필코노미 상품으로 ‘더조선포털 호텔타일’, ‘러쉬 입욕제’ 등을 만나볼 수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 “유튜브 유료계정 피해 급증 한국차별 검토 후 구글 고발” 소비자연맹 소비자 주의 당부

최근 유튜브 유료 서비스인 ‘유튜브 프리미엄’ 계정 공유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해 주의가 요구된다.

5일 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지난달 1372소비자상담센터와 한국소비자연맹이 운영하는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유튜브 계정공유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는 234건이다.

작년 1년간 접수된 피해사례 480건의 절반이 12월 한 달에 몰렸다. 관련 피해가 다수 접수된 업체는 구독브로(136건), 원더웨어(68건), 셰어킹(40건), 구독터론(26건), 구독파트너(19건) 등이다.

주요 피해 사례는 계정의 일방적 정지, 계약기간 미이행, 환불 요청 거부, 사업자 연락 두절 등이었다.

이들 업체는 가상사설망(VPN)을 통해 해외의 ‘유튜브 프리미엄 가족요금제’에 가입한 뒤 계정 공유 서비스를 구매한 소비자를 가족 구성원으로 포함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한국에서는 가족 요금제나 학생 요금제 등이 출시되지 않았고 상대적으로 고가인 유튜브 프리미엄 기본 요금제만 이용할 수 있다.

소비자연맹은 이에 대해 “가족 요금제를 이용한 계정 공유는 구글의 이용정책 위반 등의 사유로 연제는 이용이 중단될 구조적 위험이 높다”며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장윤영 기자 zzang@